

# NET WORK



## 협회·회원사

(사) 한국포장협회 연포장 분과위원회 개최  
 태진산업(주) 풀림P&P로 상호 변경  
 도레이새한(주) 부직포 사업 글로벌화 추진  
 SKC(주) LCD 편광판용 필름시장 진출

## 정책기관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산자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확대 시행  
 기표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 유관단체

(사) 한국PET용기협회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사) 한국포장기술사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 2007년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설명회 개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제23회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 업계동정

(주)경영전략 코리아팩 2007 기자간담회 개최  
 (주)오토닉스 '이달의 기업인 근로자' 수상  
 서울우유 거창 치즈공장 준공  
 무림페이퍼(주) FSC 인증 획득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개최**  
 임경호 위원장 선임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운영욱)가 지난 달 21일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임경호)를 열고 임경호 세미산업(주)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운영욱 위원장이 협회 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석이 돼 이번에 신임 임경호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포장분과위원회 소속 회원사들이 서로 협력해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장에 있는 영업부서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정보교류는 물론 공정거래질서 지키기, 제값받기 등 협회의 질서지키기 운동을 적극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날 운영욱 회장을 비롯 참가자들은 협회의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회원사들은 연포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연포장분과위원회의 총무와 간사 등 선임은 임경호 신임위원장에게 선임을 일임했고, 영업부서장회의도 임 위원장이 잘 계획해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개최

한국포장기술연구소

## 제8회 국제컨버팅기재 · 특수인쇄전 및 신기능성재료전 시찰단 모집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려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이번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TOKYO BIG SIGHT East 1,2,3 Hall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제 컨버팅기재 · 특수인쇄전 및 신기능성재료전에 참가할 시찰단을 모집한다.

이번 전시회는 Printing, Coating, Laminating, Slitting & Cutting의 컨버팅 종합전문 전시회로서 3년 주기로 개최, 1995년까지는 CMM JAPAN으로 개최됐으나, 제5회(1998) 전시회부터 CMM JAPAN과는 별도로 개최됐던 그라

비아 인쇄, 쉘, 라벨인쇄, 스크린인쇄 전문 전시회인 특수인쇄전(JSP)이 합병됐다.

2004년 전시회부터는 신기능성재료전이 함께 개최, 관련 소재, 컨버팅기술, 컨버팅기기가 총동원되는 컨버팅 전시회로서 종래에는 없던 전기 · 전자재료, 의료용품, 건축재, 산업재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컨버터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95만원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전화:(02)2026-8166, 팩스:(02)2026-8169

### 일정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4/25 (수)	인 천 동 경	KE701  전용차량	07:00 09:15 11:30	인천 공항 3층 G 카운터 집결(집결지 추후통보) 인천출발 동경 나리타 공항 도착후 가이드 미팅 중식후 전시장으로 이동 -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NEW OTANI TOKYO HOTEL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2일 4/26 (목)	동 경 아타미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 -전시회 참관 (빅사이트) 아타미로 이동(3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온천욕 HOTEL : NEW AKAO HOTEL	조식: 호텔식 중식: X 석식: 호텔식
제3일 4/27 (금)	아타미 하꼬네  동 경 인 천	전용차량  KE002	전일  17:00 19:25	호텔 조식후 하꼬네로 이동(1시간소요) 오와꾸타니(후지산 관광), 모토하꼬네삼나무길 역후지산명소- 하꼬네신사 관광후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3시간 소요) 나리타 공항 출발 인천 공항 도착후 해산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태진산업(주)  
**풍림P&P로 상호 변경**  
사출성형 및 PET용기 생산 회사 합병

태진산업(주)(대표이사 이찬수)가 풍림P&P로 사명을 변경,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태진산업(주)은 사세 확장을 위해 사출성형, PET용기, 진공성형 등을 생산하는 회사와 합병,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보다 발전된 풍림P&P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주)풍림P&P 음성공장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498-1

전화 : 043-881-4144

팩스 : 043-881-4147

도레이세한(주)  
**부직포 사업 글로벌화 추진**  
중국 난통, 연산 1만8천톤 규모

도레이세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은 지난 달 5일 중국에 PP(폴리프로필렌) 부직포 공장 기공식을 갖고 관련사업의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장쑤성(江蘇省) 난통시(南通市) 경제기술개발구 내 3만여평의 부지에 총 6백억원을 투입, 2008년부터 연산 1만8천톤 규모의 PP

부직포를 생산할 예정이다.

신규 설립회사는 도레이세한 50%, 도레이 40%, 도레이중국투자회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명은 동려고신취화(남통)유한공사(東麗高新聚化(南通)有限公司, TORAY POLYTECH (NANTONG)이다.

이번 중국 투자는 도레이세한의 첫 해외사업으로 현지공급체계를 확보한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다층(MULTI LAYER) 부직포를 생산하는 등 연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레이세한의 부직포는 현재 중국 위생제 상위 10개 업체중 9개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일회용 기저귀 시장의 15%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위생재용·의료용·공업용·농업용 등 고기능의 PP 부직포 수요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도레이세한 관계자는 “중국 투자로 국내 연산 4만9천t, 해외 연산 1만8천톤 규모로 아시아 1위의 PP 부직포 메이커로 부상한다”면서 “향후 지속적 증설을 추진해 중국에서의 장기 생산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ASEAN의 FTA 체결로 인해 현행 10%의 관세가 2010년에는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수출중심의 한국기업에는 어려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이 진출 적기로 판단하고 특히 부직포는 벌키(BULKY) 제품으로서 현지공급을 통한 물류비 경쟁력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C(주)  
**LCD 편광판용 필름시장 진출**  
 손상방지 부착용으로 활용도 커

SKC(주)(대표이사 박장석)가 LCD 편광판용 필름 시장에 진출한다.

SKC는 올해 편광판 보호·이형 필름, TAC 가공 필름 등을 신규 개발, 상반기에 출시하고 향후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편광판 보호필름과 TAC 가공(코팅처리) 필름은 국내 시장에서 편광판을 생산 중인 LG화학이 일부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량 미쓰비시나 도레이세한 등에 의존해온 이형 필름은 SKC가 생산에 나서게 되면 처음으로 국산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들 편광판용 필름과 관련해 이미 1~2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SKC는 최근 신제품 개발을 마치고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SKC는 광학 소재 분야의 원재료격인 폴리에스터(PET) 필름을 시작으로 확산·보호·반사 필름 등 백라이트유닛(BLU)용 필름에 이어 LCD 핵심소재 중 하나인 편광판용 필름 시장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게 됐다.

TAC 필름은 LCD 편광판의 편광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베이스필름으로 SKC는 TAC 필름을 들여와 후가공 처리를 해 눈부심 방지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편광판 보호·이형 필름은 편광판과 다른 필름 등 소재 결합 시 손상방지와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필름이다.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이번 달 중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지원시설인 부산디자인센터가 이번 달 중순에 문을 연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국비와 시비 등 470억여원을 들여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5403㎡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3390㎡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첨단 디자인 개발 장비를 갖춘 디자인 지원실과 디자인 정보실, 교육실, 디자인상품 전시실 등이 들어서 동남권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개발 지원과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디자인인력 교육훈련, 디자인정보 수집 및 제공, 섬유·패션연구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인증사업, 디자인상품개발 기획전, 중소기업CI(통합이미지) 및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정보지 발간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딸기 포장용기 차별화**  
 계란판형 포장 용기

딸기가 고소득 작목 가운데 하나인 경남 밀양 삼남린 농협에서 딸기 포장 용기를 차별화해 소

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용기는 보통 딸기 용기와는 다른 계란관형 포장 용기에 딸기를 선별해 담고 있고 가로 30cm, 세로 20cm의 딸기 포장 용기는 특허를 획득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딸기 포장 용기에는 위에는 굵은 씨알 아래는 작은 씨알의 딸기를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관형 딸기 포장 용기는 위, 아래, 앞, 뒤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딸기의 품질이 상품인지 중품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청주시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용**  
검정봉투 일체 수거 안내

충북 청주시가 지난 달부터 검정봉투에 담긴 재활용품은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돼 매립량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활용품 전용봉투 3백만매를 제작해 단독주택 11만5천여세대와 소규모 점포 2만8천여 개소에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전용봉투는 20l 들이 살색봉투와 30l 녹색봉투 2종이며, 이달 말까지 동사무소별로 통·반장을 통해 대상 세대에 20매씩 전달된다.

20l 살색봉투는 종이, 병, 캔류 등 부피가 작고 무거운 재활용품 배출용이고, 30l 녹색봉투는 라면봉지와 같은 필름포장재와 플라스틱 등

가볍고 부피가 큰 재활용품 배출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내용물 식별이 안 되는 검정봉투에 담긴 재활용품은 일체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전용봉투를 이용하거나 투명봉투를 이용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  
**포장 디자인 무료지원 호응**  
중소기업 및 농가 대상

제주시가 도내 중소기업 및 농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품 및 각종 포장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가의 수확물에 대한 생산기술과 품질이 평준화가 되면서 소비자의 관심 유발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눈에 띄는 상표 및 상품,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중소기업 및 1차 산업 생산자의 육성 시책으로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1백개의 중소기업 및 1차 산업 생산자 단체에 4백13개의 포장 및 시각 디자인을 개발 지원했다.

대상 품목은 공예품, 관광토산품, 특산물 제조업체 및 농수 축산물 생산업체이며 포장 디자인 및 상품 브랜드, 로고, 심볼, 캐릭터 등 시각 디자인을 무료로 개발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관

제주시는 올해에도 현재 4개 업체로부터 각종 디자인 개발 신청을 받아 7개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시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 확대**  
산지유통센터 및 물류표준화 지원

제주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이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물류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시설, 지게차, 수송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4억6천만원(균특 4억3천8백만원, 지방비 2억9천2백만원, 자부담 7억3천만원)을 투입해 하귀농협과 김녕농협, 클린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달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행정 인·허가를 이행했고 이번 달에 일제히 착공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는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과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및 기계화로 농산물을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등 일관된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도 올해 10억6천8백만원(보조 5억3천4백만원, 자부담 5억3천4백만원)을 투입해 16개소에 지원한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는 농림부의 물류인증 장비인 지게차, 선별기, 파렛트, 제함기, 벤딩기, 플라스틱 상자 등이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해 산지유통센터 3개소에 31억1천9백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4개소에 7억7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춘천시  
**GAP 도입 적극 추진**  
유통농산물 10%까지 도입 목표

강원 춘천시는 지난 달 12일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내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강화, 2013년까지 유통농산물의 10%까지 GAP 인증제도를 도입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 8일 춘천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 희망 농업인 54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농산물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사용 요령 등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까지 유통농산물의 10%까지 GAP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자원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확대 시행**  
 의무대상 35개 품목 추가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6백53개에서 6백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자원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에 새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내용을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 원산지 교육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한국수입업협회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의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가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유통중인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세관에도 원산지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물류서비스의 질 및 비용 개선

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에 따르면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과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현행의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 위원회를 개최, 최종 인증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니트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전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기관

화물의 이동 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 하여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이다.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건교부,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유닛로드시스템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 및 공동화 실현을 통한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달부터 대기업 또는 물류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범위를 물류서비스인증까지 확대, 물류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통물류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기내 액체 반입제한 모든 국제선 확대**  
 1백ml를 넘는 음료, 화장품 등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는 지난 달 부터 '항공기내 액체류 휴대 반입 제한' 규정을 모든 국제선으로 확대 시행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로 향하는 국제선 등에 부분 적용되던 것을 지난 달 부터 국내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제한 대상은 용기당 1백ml를 넘는 생수, 주스 등 음료와 샴푸 치약 화장품 선크림 헤어젤 고추장 등 젤류,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스프레이 용품이다.

건교부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는 데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분유와 음료수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 면세점 구입품은 면세점에서 별도 제작한 투명 비닐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봉인해 주면 마찬가지로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  
 폐기물 처리·자원화 관련 업무 공사 일원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등의 업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였으나, 환경부의 경영혁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심의회에서 '07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미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사에서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고재영 사장은 '07년 하반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진단업무를 추가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이 쌀 원산지표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쌀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관리**  
국산과 수입산 쌀 DNA 분석 식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 달 19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판용 수입쌀 원산지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중심의 단속원 5백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 25천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낙찰부터 최종소비까지 단계별로 추적 조사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전자입찰시스템 활용으로 금년도에는 낙찰정보 뿐만 아니라 출고정보도 실시간 수집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적발업체, 소분포장업체, 도정공장 등 취약업체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농관원은 이달 이후 수입된 시판용 수입쌀의 부정유통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유통 위반사범 24건을 적발, 4건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하는 등 결과를 거뒀다.

농관원은 특히, 올해 국산과 육안식별이 어려운 중국산을 혼합, 국산으로 둔갑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 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쌀 품종 식별마커 개발 등으로 지능적인 위반사범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소장 정영철)는 '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국고보조금을 안성시 관내 80개 작목반의 과수 및 시설재배 농가에 지원한다.

이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와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해 신용·통명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산물 포장재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의 단순 포장재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결구배추·무를 공영도매시장으로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 그물망 PE대는 90%, 골판지상자는 60%를 지원하는 등 결구배추, 무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 농업인은 포장재 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재규격, 표시사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와 협의,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고 포장재비 지원 신청을 통한 '세금계산서'와 '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작포장재 촬영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포장재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정보 교류 및 회원사 권익 보호 강화

(사)한국PET용기협회(회장 한규범)는 지난 달 15일 마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07년도 사업계획이 안건대로 승인됐다.

올해 협회는 동종 생산자 단체와의 업무 공조 및 협조 강화하고 지난해 구축한 홈페이지 통해 회원사 간 동일업무 담당자간 정보교류 활성화할 뿐 아니라 PET용기관련 이슈 발생시 TFT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먹는물 관리법 및 해양심층수 관리법, 식품안전 기본법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입법내용 검토 및 대책수립, 한미 FTA협상에 따른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제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PET용기 수요확대 및 환경친화성에 대해 홍보하고 PET용기 수급실적, 회원사의 생산, 판매실적 집계 및 분석, PET병 재생업체 동향 파악 등 PET용기 관련 국내·외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회원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사)한국PET용기협회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포장기술사회

## 제8차 정기총회 열어

### 분과위원회 설립 추진계획 밝혀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명훈)은 지난 달 15일 토즈(Toz) 강남대로점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분과위원회 설립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명훈 회장은 “회원수가 60명이 넘고 있는 포장기술사회는 10대 우수포장선정사업, ISO TC122(포장분야) 한국대표 기관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장업계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분과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1차로 소비자포장분과, 포장재료분과, 기계·물류포장분과, 포장컨설팅분과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포장기술사회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KOREA PACK 전시참여, 2008년 10대 우수포장선정 및 심사, 포장 전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포장기술사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 특별 강좌를 마련, 김득수 DMI 대표의 “Packaging Branding Technology”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제8차 정기총회 열어

국제 포장 및 식품 공정 전시회 동시 개최



▲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 2007년 상하이 국제 식품 박람회 설명회 개최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는 지난 달 20일 중국 상하이 국제 식품 전시회 (SIAL CHINA 2007) 내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프랑스파리식품박람회(SIAL) 주관사인 프랑스 엑스포지움사가 중국에서 8회째 개최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 전시회 (SIAL

CHINA 2007)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상하이 푸둥 국제 뉴엑스포센터 개최된다.

2006년 55개국 9백88개사 제품이 출품된 전시회는 2만여명의 방문객이 참여, 성황을 이뤘으며 금번 1천1백사가 출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전시회에는 전체 부스 규모는 약 3만5천m<sup>2</sup>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을 비롯, 미국, 태국, 일본, 한국, 이집트, 인도, 베트남, 남아프리카, 호주 등이 지난 전시회에 이어 재참가를 확정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 농업부 대외경제교류센터와 중국통조림식품협회 및 여러 지방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전시팀을 구성하여 전시회에 참가함에 따라 중국 지역별 전시관, 와인 및 주류 전시관, 유제품 전시관, 통조림 식품전시관 등의 특별관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전시회는 총 1백34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 포장 및 식품 공정 전시회인 Packtech & Foodtech 전시회도 Sial china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홈페이지 ([www.sialchina.com](http://www.sialchina.com))을 참조하거나, 주한 프랑스 국제 전시 협회(Promosalons Korea)로 연락하면 된다.

Tel : 02-564-9833/ 9771 Fax : 02-539-7664 E-mail : [korea@promosalons.com](mailto:korea@promosalons.com)



제이브이엠,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 출품



▲ 제23회 국제의료기기 · 의료정보전시회에 참가한 (주)제이브이엠의 정제분류포장기

국민보건 향상과 병  
원시설 현대화는 물론  
국내 의학술 발전 및 국  
내 의료기기와 의료정  
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의료인의 축  
제인 제23회 국제의료  
기기 · 의료정보전시회  
(KIMES 2007)가 지난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됐다.

한국이엔엑스, 한국의  
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업체 4백27개사가 참가했다.

또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중국 등 총 32개국 1천38개사가 참가했으며 첨단의료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1천여기종 2만여종이 전시 소개됐다.

주요 전시 분야로는 진찰 및 진단요기기, 임상, 검사요기기, 제약관련기기 등 16품목에서 의료 관련업체가 골고로 출품하여 이번 전시회가 그 어느 회보다도 국내 의료 관계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에게도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제약 포장 시스템 전문 생산업체인 (주)제이브이엠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ATDPS)'을 출품, 바이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ATDPS는 병원과 대형 약국에서 처방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약을 분류, 포장하는 것은 물론 투약정보 인쇄와 유통기한관리, 재고수량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최첨단 장비다.

(주)경연전람  
**KOREA PACK 2007 기자간담회 개최**  
 사상 최대 1천4백 부스 규모로 열려

(사)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기계협회, (주)경연전람, 월간 포장이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포장전문전시회 코리아팩(KOREA PACK) 2007이 이번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다.

(주)경연전람(대표이사 김영수)는 지난 달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팩 2007의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인 1천4백부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팩은 이미 지난해에 1천2백50부스가 참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포장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코리아팩 2007은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해 30개국 6백개사 1천4백부스가 참가 신청했으며 현재 부스 배정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기업들이 30여개사 1백부스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7), 제약·화장품 산업 전시회(COPHEX 2007)와 동시에 개최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R&D 전문산업전인 연구·실험기자재 및 첨단분석장비전시회(KOREA LAB)가 함께 개최, 포장관련 전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준석 경연전람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로비 홀까지 1백여 부스를 추가로 마련했으며 아직 대기 중에 있는 부스도 1백여개가 넘는다”고 전하면서 “아시아 지역 대표 포장전시회로 인정받고 있



▲ (주)경연전람 KOREA PACK 2007 기자간담회 개최

는 만큼 이번 전시회는 해외바이어 유치와 질적으로 향상된 세미나에 가장 주력했다”고 전했다.

코리아팩 2007에서는 △ 스웨덴의 포장산업 기술과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주한스웨덴대사관 무역대표부) △ 환경포장 국제동향과 국내 제도화 방향(한국포장기술사회) △ 국내외 식품포장 안정성의 현황 및 전망(한국포장학회) 등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경연전람  
**참기업체 설명회**  
전시 교육 세미나도

코리아팩 전시사무국((주)경연전람 대표이사 김영수)은 지난달 20일 일산 킨텍스 세미나실에

서 참가업체 설명회 및 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개 업체가 코리아팩 2007의 운영상황,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전시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출품업체 성과증진 교육세미나에는 황희곤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전시회 참가업체의 마케팅 활성화 전략'과 김광석 (주)솔팩 전무이사의 '전시회 출품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코리아팩 2007에는 (사)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기계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월간포장, (주)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며 COPHEX, KOREA LAB이 동시 개최된다.

12번째를 맞은 코리아팩은 지난해 대비 10% 성장한 30개국 6백여개사 1천4백부스가 참가 신청되었고 전시장 로비홀에도 1백여 부스를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회는 이번 달 24일 개막된다.



▲ (주)경연전람 KOREA PACK 참가업체 현장 설명회 열어

(주)오토닉스  
**‘이달의 기업인·근로자’ 수상**  
 양산시로부터 지역사회 발전 인정받아

센서·제어기기 전문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 박환기 사장과 생산기술부 권원규 부장이 지난 달 13일 경남 양산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인상과 근로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양산시는 2007년 2월부터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인과 노동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를 매달 선정해 시상기로 하였으며, 오토닉스의 박환기 사장과 동사 생산기술부 권원규 부장이 그 첫번째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오토닉스는 1977년 부산에서 설립된 후 1998

년 경남 양산시에 본사와 공장, 연구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오토닉스는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산업자동화 시장을 개척해 왔으며, 지난 2006년에는 신기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센서·제어기기 업체로는 가장 많은 총 5천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 산업자동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가고 있으며, 세계 1백여개국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오토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5백92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안심하고 회사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998년 양산 공장 준공 및 이전 입주와 동시에

자체 어린이 보육 시설인 『웅비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06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의 근로자상을 함께 수상한 동사 생산기술부 권원규 부장은 창립 이듬해인 1978년 입사, 29년간 근속하며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아 이달의 근로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 (주)오토닉스 ‘이달의 기업인·근로자’ 수상 영예



(주)오토닉스  
**송도 u-IT 클러스터 입주사 선정**  
 기반기술력 인정받아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지난 달 7일 송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클러스터 내 제조지역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u-IT 클러스터는 인천시와 정통부가 RFID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RFID/USN 업체들이 집적된 단지에서 공유기반 시설을 이용해 윈스톱 필드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송도 u-IT클러스터 입주는 총 79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으며, 9: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뚫고 R&D지역 2개사, 제조지역 7개사 등 총 9개사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심의를 위해 전문 기관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공유기반 시설활용 등을 판단, 총 3차에 걸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토닉스는 국내 최고의 센서전문기업으로써 u-IT 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적합해 제조지역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금번 송도 u-IT클러스터 입주는 오토닉스가 동 단지관련 기반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오토닉스의 자체 기술력이 송도 u-IT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토닉스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외산 일색이었던 척박한 국내

시장을 개척해왔으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독자기술을 축적해왔으며, 2006년에는 신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 업체로는 가장 많은 총 5천여종의 다양한 제품으로 외산 제품을 제치고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산 제품에 뒤지지 않는 제품 경쟁력으로 1990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개시하여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현재 6개 국가의 현지 법인과 2개 국가의 해외사무소, 90여개의 에이전트를 통해 약 100여개국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서울우유  
**거창 치즈공장 준공**  
 윈스톱시스템 처리

서울우유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치즈 제조 기술의 결정체인 서울우유 거창 치즈공장을 준공했다.

약 1백억원을 투자해 청정지역인 경남 거창에 조성돼 깨끗한 환경에서 우수한 시설로 최상품질의 다양한 치즈를 공급하게 됐다.

특히 유럽 정통치즈 전문브랜드인 독일 호흐란트사의 최첨단 치즈 제조 기술을 결합해 원료 투입부터 제조 출하까지 윈스톱시스템으로 처리된다.

또 포장 자동화 및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세계 어디



## 업계동정

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치즈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우유는 거창공장 완공으로 월 생산능력 7백90톤의 치즈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 무림페이퍼(주) FSC 인증 획득 제지업계 최초

무림페이퍼(주)(대표이사 이동욱)가 제지업체로는 최초로 FSC 인증을 따냈다.

무림페이퍼는 지난 달 20일 국내 제지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FSC 인증은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가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원시림 무단 벌목이나 유전자 변형 목재펠트가 아닌 조림 펄프 제품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4천3백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이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모든 종이 제품에 대해 FSC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우선 네오아트 SE, 네오스노우화이트 등 대표 제품들에 FSC 인증 라벨을 부착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제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세림제지(주) 사명 '세하'로 변경 자원개발 및 환경사업 등 신사업 추진

세림제지(주)(대표이사 이동윤)는 지난 달 14일 자원개발과 환경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회사명이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세하'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새로움, 믿음, 에너지를 의미하는 심벌을 바탕으로 'Wings of Change'를 표기한 CI도 공개했다.

세하는 '세상의 으뜸,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지중심 사업에서 자원개발, 환경사업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통한 사업 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명을 교체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리브로 '퍼펙트 안심배송 서비스' 선보여 우선, 안전포장 배송 등

국내 최고의 온&오프 도서 포털을 지향하는 (주)리브로(대표이사 김경수)가 '퍼펙트(Perfect) 안심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배송서비스의 완결판!**  
**PERFECT 안심배송 서비스 5**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배송, 하루배송은 기본! 안전포장과 배송품질 보상까지!  
배송품질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리브로가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1**  
오늘 주문하고 오늘 밤새 초고속 오늘배송  
LIBRO Today 01

**서비스 2**  
전국 어디나 하루만에 신속한 하루배송  
LIBRO Oneday 01

**서비스 3**  
가다다 지치지 마세요! 재고 있는 책부터 우선 배송  
50만 이상 주문시

**서비스 4**  
배송지연 피스, 오배송 모두 보상! 배송품질보증 보상

**서비스 5**  
복합 견도 소용없게 안전포장 서비스

▲ 리브로 '퍼펙트 안심배송 서비스5' 선보여

인터넷서점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우선배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의 인터넷서점 업계가 실시하고 있던 배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Today 킁오늘배송', 'Oneday 하루배송', '우선배송', '배송품질보증 보상', '안전포장 배송'의 5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우선배송'은 주문결제가 이루어진 지 24시간 이후, 타 상품의 재고확보 때문에 출고되지 못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문상품개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하며 결제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출고 가능' 상품이 1개 이상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배송료 할인이나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위해 다량의 책을 구매하고 난 후, 주문한 모든 제품의 재고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품을 배송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리브로의 우선배송 서비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송지가 서울인 경우, 오전 10시까지 주

문 및 결재를 완료하면 당일 바로 배송해주는 'Today 킁오늘배송', 전국 어디나 주문결제 하루 뒤에 책을 받아 볼 수 있는 'Oneday 하루배송', 예상배송일보다 늦거나 파손된 물품이 배송될 시 최고 4천원까지 적립금으로 보상해주는 '배송품질보증 보상' 서비스가 모두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의 포장 비닐과 박스를, 제품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봉투와 안전박스로 모두 교체한 '안전포장 배송'도 시행된다.

정진균 리브로 온라인사업본부장은 "고객만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배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퍼펙트 안심배송 서비스5'를 통해 리브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더욱 빠르고 기분 좋은 도서쇼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브로는 이번 '퍼펙트 안심배송 서비스5'를 시작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제철소 선재부  
**The Best Wire Rod' 선포식**  
세계최고 품질 보증

포항제철소 선재부(부장 김병홍)는 지난주 제품출하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선재를 만들기 위해 'The Best Wire Rod'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포항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제품포장업체가 함께 참여, 'The Best Wire Rod'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부품질은 물론 외관품질과 포장 마무

업계동정

리까지 최고의 선재 만들기에 동참했다.

향후 선재부는 세계최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공장장과 현장 작업자의 이름, 사진, 이메일 주소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만족에 앞장 설 계획이다.

다운  
**일회용 압축 팬티 출시**  
자판기 이용한 포장 제품

찜질방이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때 대여복의 세균걱정으로 매번 속옷을 챙겨야 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착안한 아이디어 상품이 일회용 압축 팬티 '다운'이다.

다운은 기존의 일회용 속옷과는 달리 압축 포장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 유발과 휴대가 간

편하며 완전 건조된 천연펄프에 표면이 코팅 처리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착용감이 우수하다. 또한 현행법상 일회용품에 속하지 않아 사용 후 폐기 처분 시 별도의 처리가 필요없다.

자판기 사업의 최대 이점을 살려 저렴한 창업비용과 본사의 적극적인 지역별 상권분석을 통한 최대 수익을 보장하며 설치 후 6개월간 AS를 보장하여 안정된 창업을 지원한다. 자판기의 최대 장점인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음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작은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장특허 출원으로 사업주들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유재석 실장은 “찜질방에서 매번 속옷을 챙겨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노출로 인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어 특히 좋다”면서 “여행이나 출장 때에도 속옷을 빨아 입을 불편을 줄여 젊은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다운 일회용 압축 팬티 출시

농산물업계  
**수삼경매제 운영**  
인삼유통시스템 획기적 변화

금산인삼농협은 지난 달 20일 금산군 금산읍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 지하 수삼산지집하장에서 첫 경매인 ‘초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삼경매제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해 9월 서울 가락동 농협직판장에서 수삼경매제를 첫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금산의 경우 경작농가로부터 직접 수삼을 공급받는 산지라는 점에서 이번 경매제도입은

수삼유통역사발전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삼은 그동안 전매제의 영향으로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비규격 박스에 생산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거래되어 온데다 주로 도매상들에 의해 임의로 거래가격이 형성됐다.

수삼경매제는 이같은 유통구조를 절반 이하로 줄여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생산자와 생산지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정적인 품질 및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산인삼농협은 경매제 도입을 위해 4백여평의 매장을 확보, 6천만원 상당의 전자경매시스템을 포함해 냉장쇼케이스, 도난방지시스템 등 총 3억 2천만원을 투입했다.

이날 초매식에는 총 11명의 중도매인이 참가한 가운데 수삼 4t이 거래될 예정이며 이 물량은 모두 농약잔류검사를 거치고 30kg단위로 포장된 것이다.

농협은 이번 경매를 통해 경작자에게 공정한 거래제공 및 경매완료시 신속히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익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등급과 생산지, 생산자 등을 명시한 단위포장으로 실수요자에게 제공,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두산주류BG  
**'처음처럼' 프리미엄 출시**  
제품 포장, 고급 이미지 지향

소주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처음처럼' 프리미엄 버전이 나온다.

(주)두산주류BG(대표이사 한기선)는 지난 달 12일부터 고급 소주 '처음처럼 프리미엄'을 판매했다.

이 제품은 10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증류주를 원액으로 사용해 마시기 좋고 부드럽고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다고 두산측은 설명한다.

반면 오리지널 제품인 '처음처럼'은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정(소주 원액)에 물과 첨가물을 섞은 희석식 제품이다.

알코올 도수는 20도로 중전 제품과 같다.

제품 포장도 고급 이미지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사각형 병에 청록색을 가미한 라벨을 사용했다.

두산은 이번 제품 출시로 처음처럼의 성공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고급 소주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두산 관계자는 "기존 제품이 20·30대 젊은층에 어필했다면 이번 제품은 고급 소주에 대한 수요가 큰 중장년층까지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주)두산주류BG '처음처럼' 프리미엄 출시

동아제약(주)  
**판피린 큐** 브랜드 리뉴얼  
 5병 팩 포장으로 휴대 편리

동아제약의 대표 감기약 ‘판피린 에프’가 출시 19년 만에 ‘판피린 큐’로 다시 태어났다. 동아제약측은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통해 젊은층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아제약(주)(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5일 자사 감기약 ‘판피린 에프(F)’의 약효와 디자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판피린 큐’는 ‘구연산티포피딘’ 5mg을 추가해 진해·거담 작용을 강화했다. 기존 감기, 몸살, 두통 환자는 물론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약효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5병 팩(pack)’ 포장을 추가해 휴대와 보관이 더욱 편리해졌다. 제품 포장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다. 포장 겉면에 ‘감기’ ‘몸살’ ‘두통’의 효능·효과를 재미난 캐릭터로 표현해 고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



▲ 동아제약 판피린 큐 브랜드 리뉴얼

식품업계  
**즉석조리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한 팩 단위로 확인 가능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 포장에 적는 영양성분 표시가 즉석 조리 식품에도 표기된다.

신세계 이마트는 1백5개 전 매장의 즉석조리 코너에서 파는 2백50여 가지 전 메뉴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제’를 지난 달 7일부터 실시했다.

안내문이나 포장지를 보면 김밥, 튀김, 샐러드, 순대, 영양밥, 소시지, 돈가스 등의 영양성분을 100g 또는 한 팩 단위로 알 수 있게 된다. 표기할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다섯 가지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인 기관인 (주)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지난 해 12월부터 서울 양재점에서 ‘표시제’를 시범 실시해 왔다.

‘영양성분 표시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돼 왔지만 조리식품에 전면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 이병길 상무는 “건강식과 저열량식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지방, 나트륨 같은 성분을 가려 먹겠다는 소비자가 늘어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무실 이전  
 동신케미칼**

주소: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0-4 대우미래사랑 801호  
 전화:02-2699-1425, 팩스:02-2699-1426



## 신제품

(주)김정문알로에

### '자운비' 출시

(주)김정문알로에(대표이사 최연매)는 최근 '6년근 발효홍삼 자운비'를 출시하고 인삼 및 홍삼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6년근 발효홍삼 자운비'는 소비문화 트렌드인 한방 컨셉트에 맞춰 개발된 건강식품으로 발효홍삼을 주원료로 백복령, 건지황, 맥문동, 천문동 등을 함유한 전통식물소재제품이다.

발효홍삼은 6년근 홍삼에 발효기술을 접목해 홍삼의 주요 유용성분인 사포닌을 사포닌대사 물 상태로 섭취하게 함으로써 사포닌의 흡수율 증가와 섭취의 개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홍삼과 차별화를 가졌다. 또한 홍삼사포닌과 비사포닌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해 홍삼의 유용성을 폭 넓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발효와 숙성공정을 통해 전통식물 소재제품 특유의 쓴맛과 식감을 개선해 쓴 맛을 기피하던 기존 고객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게 개발됐으며 제품을 스틱포장해 섭취의 편리성과 휴대의 간편성을 도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 관계자는 "출시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계획한 출시 목표를 이미 초과했으며 대리점의 추가주문으로 인해 긴급하게 생산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홍삼 제품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 및 발효홍삼의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풀무원녹즙,

### '피곤한 오후4시 상큼한 모로미초' 출시

(주)풀무원녹즙(대표이사 김용준)이 일본산 프리미엄 모로미초를 원료한 고품격 식초 음료 '피곤한 오후4시 상큼한 모로미초'를 출시했다.

'피곤한 오후4시 상큼한 모로미초'는 일본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100% 모로미초 원액에 포도, 매실,

## 업계동정

골든키위, 블루베리 등 천연과즙을 첨가해 맛과 영양을 더했다. 식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없어 희석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 '피곤한 오후4시 상큼한 모로미초' 1팩(100ml)은 600mg 이상의 천연 구연산이 함유돼 있어 피로 회복을 위한 직장인들의 건강 음료로 제격이다.

친환경식품 전문점 울가를 비롯해 인터파크, 디앤샵, 삼성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모로미초란 세계 제일의 장수지역인 일본 오기나와 특산품으로 아와모리 청주(쌀 발효주) 제조에 사용된 검은 누룩균으로 자연 발효한 천연 식초다. 초산이 주원료인 다른 식초와 달리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구연산이 주성분이다.

이밖에 아미노산,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일본에서 피로회복은 물론 다이어트, 미용 등의 용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풀무원녹즙은 엄격한 제조원칙에 따라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엄격한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한 원료만 사용하며, HACCP 인증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므로 믿고 먹을 수 있다.



## (주)동원F&B

### '본엠 베이컨' cnfyj

(주)동원F&B(대표이사 김해관)는 독일 육가공 마이스터가 직접 설계해 만든 프리미엄 베이컨 '본엠(Born. M) 베이컨' 2종을 출시했다.

'본엠 베이컨'은 CRS(Clean Room System)를 통해 와인담음, 녹차담음 등 2가지로 출시됐다. 와인담음은 스페인산 와인에 숙성시킨 정통 유럽형 제품이다. 베이컨 녹차담음은 보성녹차에 숙성시킨 웰빙 제품이다.

본엠(Born. M)이라는 브랜드 이름은 'Born From Meister'에서 따왔으며 '마이스터가 제대로 만든 유럽풍



프리미엄햄'을 의미한다. 마이스터(Meister) 제도는 독일 특유의 기능인력제도로, 마이스터가 되려면 기초교육(9년)을 마친 후에, 직업훈련원(3년제)을 나와, 기능사(Geseller)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서 일정 기간 경력(3년 이상)을 쌓은 다음, 마이스터(Meister) 과정 교육을 따로 받고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본엠 베이컨'은 독일 보헨하임(Bohenheim)대학 식품공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육가공 마이스터 쿠르트 헤르만(Kurt Herrman)씨의 제품 개발지도 속에 만들어졌다. 동원F&B는 헤르만씨를 제품 패키지 및 CF 모델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주)오뚜기

### '오뚜기유기농 케첩 출시

(주)오뚜기(대표이사 강신국)가 믿을 수 있는 원료에 오뚜기 케첩만의 맛을 더한 '오뚜기 유기농 케첩'을 출시했다.

'오뚜기 유기농 케첩'은 3년간 어떠한 화학비료와 농약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자란 유기농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샐러드, 볶음밥, 계란후라이, 튀김류 등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특히, 미국 농무성(USDA)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99% 유기농 제품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 유기농 케첩은 미국 농무성(USDA)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다"며 "오뚜기만의 케첩 맛을 내기 위하여 오뚜기의 배합비와 노하우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케첩 시장은 600억원 규모로 매년 4~5%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가 8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전체 케첩 중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기농 케첩은 2003년 시장 형성 이후 30~4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해태음료(주)

### '차온' 출시

해태음료(주)(대표이사 오주섭)가 20대의 감성을 담은 혼합차 '차온'을 출시했다.

'차온'은 '차를 마시며 스타일을 켜다'라는 의미로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패키징에서부터 맛에 이르기까지 기존 음료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고 모던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입혔다.

'차온'은 보리, 등굴레, 현미, 옥수수 등의 곡물과 녹차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마시기 부드러울 뿐 아니라 고소한 감칠맛이 살아있다.

해태음료는 광고모델로 정우성과 지현우 두 톱을 내세워 2029세대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광고를 통해 이들의 일상 속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제품 '차온'을 그려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태음료는 1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모션 활동을 계획 중에 있어 신제품 '차온'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방침이다.



## 웅진식품(주)

### '맑은땅 옥수수 수염차' 출시

웅진식품(주)(대표이사 유재면)이 기존 옥수수차 대비 더욱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지닌 '맑은땅 옥수수 수염차'를 출시했다.

'맑은땅 옥수수 수염차'는 환경부 지정 청정지역인 공주시 유구의 천연 암반수로 우려냈으며, 옥수수의 구수한 맛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추출방법을 이용해 더욱 깔끔하고 구수한 맛을 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의 기능까지 더해져 물 대용 차로도 제격이다.



웅진식품 측은 메인 타깃인 20대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우선 서울 지역 16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맑은땅 옥수수 수염차'를 후원했으며, 향후 직장인 밀집 지역 편의점과 슈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옥수수차 음료는 2005년 11월 중소기업인 담원에서 만든 '옥수수 끓인물'을 효시로 동서식품의 '옥수수',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 롯데칠성의 '오늘의 차 옥수수'가 출시되면서 올해 3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주)한국야쿠르트

### 레드자몽 C.C 출시

(주)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김순모)는 무색소, 저탄산, 저칼로리 웰빙 음료인 '레드자몽 C.C'를 출시했다.

'레드자몽 C.C'는 상큼한 맛의 레드자몽 과즙과 비타민, 자일리톨을 함유하고 있어 맛이 깔끔하며,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레드자몽 C.C'는 풍부한 '비타민C'와 '강한 자몽향'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비타민C와 중성 지방을 연소하는 생리활성화물질 분비를 촉진시키는 강한 자몽향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존 음료와 차별화를 위해 혁신적 PET 용기인 '누드 캔(Nude-can)'을 사용했다.

붉은 빛의 투명한 스티커 라벨은 레드자몽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내용물의 상태파악이 용이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한국야쿠르트 음료운영팀 채은홍 과장은 "기존 C.C 제품의 장점에 레드자몽의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이라며 "차별화된 용기와 특화된 소재를 바탕으로 과즙을 함유한 탄산음료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 롯데제과(주)

### '카스타드 까망베르' 출시

지난 89년 국내 최초로 카스타드 시장을 개척한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길수)가 웰빙 추세에 맞춰 까망베르치즈와 영양성분을 첨가한 '카스타드 까망베르'를 선보였다.

야심을 갖고 내놓은 '카스타드 까망베르'는 기존 부드럽고 촉촉하며 담백한 맛의 케이크에 정통 유럽 풍 치즈의 진수로 평가받는 까망베르 치즈를 혼합, 독특한 맛과 향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케이크이다.

까망베르 치즈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까망베르 마을에서 만들어져 치즈의 본고장인 유럽에선 치즈의 여왕으로 불려질 만큼 명성이 높는데,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애호층이 생길 정도로 독특한 맛과 부드러움이 일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동아오츠카(주)

### '그린타임 두번째 우려낸 녹차만 담았다' 출시

동아오츠카(주)(대표이사 강정석)는 기존 차 음료인 '그린타임 녹차'를 새롭게 리뉴얼 한 '그린타임 두번째 우려낸 녹차만 담았다'를 출시한다.

'그린타임 두번째 우려낸 녹차만 담았다'는 제품명 그대로 두 번째 우려낸 녹차의 깊고 풍부한 향미를 구현해 낸 제품이다.

첫 번째 우려낸 녹차는 맛과 향이 채 열리지 않아 맛이 짧고 강한 느낌인 반면 두 번째 우려낸 녹차는 비로소 개차(開茶)돼 녹차 본연의 깊고 그윽하면서도 풍부한 맛과 향이 우려난다. 세 번째 우려낼 때부터 녹차는 고유의 맛과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려냈을 때 녹차고유의 맛과 향을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동아오츠카는 차 전문가들의 이러한 조언에서 착안해 기존 생산설비 자체를 재설비함으로써 첫 번째 우려낸 녹차는 모두 버리고 두번째 우려낸 녹차만을 사용하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 (주)석수&퓨리스,

### '석수 5l 페트병 출시

(주)석수&퓨리스(대표 최광준)가 먹는 샘물 페트 가운데 최대용량인 5l 짜리 '석수'를 출시했다.

5l 용량의 먹는 샘물은 국내 최초로 생산되는 것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레저용으로 시판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석수&퓨리스는 기존의 대형(18.9 리터) 제품이 너무 무거운 단점을 보완해 가족단위 여행이나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개발했으며 손잡이까지 부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수&퓨리스 관계자는 "1인 또는 소규모 가족단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적당한 용량으로, 가격면에서도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 동서식품(주)

### '맥심 아라비카100' 출시

동서식품(주)(대표이사 이창환)은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 짙은 향과 부드러운 맛이 뛰어난 '맥심 아라비카100'을 출시했다. '맥심 아라비카100'은 SDR(Steam Distillation of Roasted Coffee) 공법을 통해 볶은 원두를 분쇄하는 즉시 향을 추출, 아라비카 원두의 신선한 맛과 깊고 풍부한 향을 그대로 살려냈다.

동서식품 안경호 홍보팀장은 "기존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좀더 진한 커피향과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강화된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바쁜 현대인들이 깊은 맛과 향이 가득한 '맥심 아라비카100'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일상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